길림성 125개 도시공원록지 지도 개방 공유

일전, 길림성주택건설청은 〈길림성 2024년 도시공원록지 개방공유 지도〉를 발표, 전 성의 도합 125개 공원록지 명단을 개방하고 공유했다.

기자가 정리해본 데 따르면 장춘시에서 23개, 길림시에서 12개, 사평시에서 8개, 통화시에서 14개, 백성시에서 10개, 료원시에서 10개, 송원시에서 9개, 백산시에서 14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15개,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 9개, 매하구시에서 1개 공원이 이름을 올렸다. 연변에서는 연길시의 인민공원, 송도공원, 아리랑체육공원, '로동의 미'주제공원; 돈화시의 북산공원, 빈강공원, 은룡공원; 훈춘시의 룡원공원, 빈수공원; 룡정시의 해란강공원과 화룡시의 화해공원, 왕청현의 병풍산삼림공원과 안도현의 문화박람성광장, 이룡산공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빈강공원과 탑전공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전 성의 모든 시와 현에서 공원록지를 개방 공유하였는데 총면적이 267헥타르에 달하며 그 중에서 잔디밭이 85헥타르, 림하공간이 131헥타르, 여유지가 51헥타르로서 대중들을 위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따스한 도시 록색 레저 공간을 만들어 전 성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오건기자

연길시 북산가두

사회구역 학생 조직해 부대 참관 학습

연길시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부주임 리장삼으로부터 혁명선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사와 학생들

최근, 연길시 북산가두당위는 건군절에 즈음하여 단영사회구역 청소년들을 조직하여 혁명전통과 혁명정신을 학습하는 것을 주제로 연길 주둔 모 부대를 찾아 실천활동을 진행했다.

교관의 인솔하에 학생들은 각종 트로피와 상장, 우승기가 진렬되여있는 부대의 영예실을 참관하면서 부대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탁월한 성과를 료해했다. 부대 해설원으로부터 영예의 배후에 깃든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전사들의 용감한 정신에 깊이 탄복했다. 전사들은 다채로운 군사훈련과목을 보여주었고 학생들은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길시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부주임 리장삼은 항일전쟁, 해방전쟁 및 항미원조전쟁에서의 로전사들의 눈물겨운 전투사적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조국을 보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혁명선렬들의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선렬들에 대한 추모의 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이번 활동은 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열애하며 군대를 사랑하는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진실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력사를 명기하고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한차례의 좋은 실천수업이였다.

/ 리성복특약기자

안도현, 향촌 로인들 위한 무료건강검진

로인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저 일전 안도현 송강진중심위생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을 조직해 촌툰에 내려가 65세 이상 로인과 빈곤해탈 인원들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전개했다.

송강진중심위생원은 앞서 여러 촌의 의사들을 조직하여 전화와 입적 등 방식으로 무료건강검진 활동에 대해 널리 선전했다. 이번 건강검진에는 일반신체검사, 혈액검사, 뇨액검사, 간과 신장 기능, 혈당, 혈지,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였다. 검진이 끝난 후 의료요원은 신체검사 상황에 따라 건강 지도를 하고 만성병이 있는 로인에게는 만성병 추적 방문과 보건 지도를 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확실하게 하게 된다. 지금까지 4개 행정촌의 300여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쳤다.

송강진중심위생원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에게 편리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의식을 증강시킴과 아울러 로인들로 하여금 공공위생 써비스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몸소 느끼게 하고 로인들의 건강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리전기자
/ 사진 안도현 위생건강국

'8.1'건군절 맞아

장백현 조선족 로인들 부대 장병들과 련환모임

다채로운 공연 장면들

7월 27일 오후, 장백조선족자치현 조선족로인협회에서는 '8.1'건군절에 즈음하여 50여명의 회원들을 조직해 여러가지 맛나는 과일과 조선족 특색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길림성의 동남변경 압록강역을 굳건히 지켜서고 있는 당지 주둔 모 변방부대를 찾아 명절의 위문과 함께 뜻깊은 련환모임을 펼쳤다.

이날 현조선족로인협회에서 출연한 무용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남녀 2인창 〈실속의 말 한마디 하련다〉, 가무 〈군인 속의 록화〉, 관악합주 〈해방군 행진곡〉, 〈인민군대 당에 충성하네〉, 퉁소합주 〈가장 아름다운 노래 어머니에게 드린다〉, 조선족무용 〈봄날의 고향〉, 〈옹헤야〉 등 종목은 당과 조국을 열애하고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옹호하는 장백 조선족 로인들의 열정과 심정을 충분히 구현했다.

주둔부대 장병들의 무술시범, 씨름, 재담, 소품 등 종목은 당을 열애하고 인민을 옹호하는 새시대 군인들의 량호한 정신풍모, 굳센 의지와 신체자질, 기술기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장내에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련환모임은 현조선족로인협회 로인들과 부대 장병들이 공동으로 출연한 조선족무용 〈아리랑〉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입대했다는 한 전사는 '8.1'건군절을 맞으며 처음으로 군민친선모임에 참가하여 조선족 로인들의 다채로운 문예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보니 군민간의 대단결, 민족간의 대단결이 돋보인다며 금후 부대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변경을 수호하는 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말했다.

/ 최창남

연변병원, '세계 태아학자의 날' 무료진료활동 전개

임신 준비중인 가정에 우생우육 자문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

7월 25일,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연변병원')은'세계 태아학자의 날'(世界胚胎学家日)을 맞아 '생명의 시작을 관심하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구축하자'를 주제로 무료진료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생식건강 써비스를 강화하고 생식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료해와 관심을 제고하며 불임, 난임 가정들의 문제들을 한층 더 해소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료해에 따르면 1978년 7월 25일 세계적으로 첫번째 '시험관 아기'가 태여났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5일을 '세계 태아학자의 날'로 정했다.

연변병원 마케팅부 주임 등월령은 "올해 7월에 보조생식 항목이 정식으로 국가의료보험에 편입되였다. 연변병원은 연변에서 유일하게 위생건강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시험관 아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지정 병원으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자격을 갖춘 유일한 의료기구이다."라고 피로했다.

등월령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서 연변병원은 생식의학센터와 산부인과의 20여명 의료진을 파견하여 100여명 대중을 위해 봉사했다. 활동은 녀성의 생육력과 남성의 생육기능에 대한 평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임신기에 대비한 녀성들을 위해 체계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들에게 전면적인 임신기 건강 지도와 산후 회복 지도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진은 난임 또는 임신을 준비중인 가정에 대해 개성화 임신보조 방안을 제정하고 전면적인 우생우육 자문 써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의문에 해답했다.

연변병원 생식의학쎈터 부주임 연화는 "규칙적이고 량호한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은 란자와 정자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임신 준비중에 있는 남녀는 평소부터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출산년령도 중요한데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는 가정들에서는 가급적 빨리 전문의료기구를 찾아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활동 현장에 검진받으러 온 시민 온녀사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여태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무료진료는 우리 가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였다. 서류 작성후 무료로 10회의 란자검사와 2회의 정액검사를 제공받게 된다."고 하면서 가정에 새 생명이 생기기를 기원했다.

/ 리전기자

▶ 1면에서

장춘영화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장엄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장춘영화그룹은 개혁을 기업의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고 '영화 운영 6대 리념'을 계승하여 영화 본업의 창작을 강화하고 산업경영구조를 최적화하며 기업 경영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등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써 전원회의 중대한 개혁 포치를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제적 성과로 전환시킬 것이다."

문화 공급을 최적화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적 획득감과 행복감을 증강시킨다.

문화는 민심을 결집시키는 정신적 뉴대이며 또한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관건적 요소이다.

공공문화 써비스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박물관은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공공문화 장소이다. "문화써비스와 문화제품 공급 기제의 최적화에 착안점을 두고 〈결정〉은 '공공문화 써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량질의 문화자원이 기층에 직접 도달되는 기제를 구축하며 사회력량이 공공문화 써비스에 참여하는 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등 개혁의 과업을 명확히 했다. 이는 새시대 박물관과 사회문물 사업을 잘하는 데 지침을 제공했다." 길림성박물원 원장 한려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로 써비스 수준을 계속 향상하고 일련의 박물관 사회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연학활동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고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추세와 결합하여 '박물관+연학(研学)관광'의 혁신발전을 추동하며 박물관을 청소년 교육의 '제2교실'로 되게 할 것이다. 문물 해설의 새로운 특색을 발굴하고 해설 언어와 방식에 대해 이중 혁신을 하며 다원화 해설 대오를 육성하고 문물의 배후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대중들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문화 써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할 것이다."

근년래 문화관광산업은 빈번히 '테두리'를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와 관광, 시와 먼곳이라는 리상적인 생활은 이미 인민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산업의 혁신과 창조 활력을 더 잘 불러일으켜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증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화관광산업 개혁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발전 기제 체제를 건전히 하는 것'은 문화관광 개혁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 길림성문화관광청 청장 손광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전 과정에 고품질 발전 리념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일관시켜 문화관광 우세 산업의 품질 향상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장백산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챠간호라는 '황금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현대화 문화관광산업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문화관광산업의 심층적인 융합발전 체제 기제를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고 건전히 하며 문화로 관광을 육성하고 문화로 관광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견지하여 길림성의 특색문화를 깊이있게 발굴, 분석, 해석함으로써 보다 많은 문화자원을 고품질의 관광상품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문화와 관광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증강하고 문화와 관광 특색을 겸비한 더욱 많은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장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신질생산력으로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길림일보